

“도심 하천 반딧불이 대량 서식지 지켜주세요”

광주 대촌천 개체수 지난해 820마리...2년만에 600여마리 줄어 도시 개발·불법 소각·경작 등 원인...보존회 오늘 모니터링 보고회

광주시 남구 대촌천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반딧불이 수가 최근 도시 개발과 불법 소각, 경작 등으로 살 터전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대촌천반딧불이보존회' (이하 보존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472마리까지 불어났던 대촌천 반딧불이는 2020년에는 827마리, 2021년에는 820마리로 쪼그라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년 동안 개체수가 44%가량 줄어든 것이다. 보존회는 (사)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광주 지부 사무처장인 박병욱 회장의 주도로 창단한 민간 환경단체다.

반딧불이는 수질·대기오염에 약한 탓에 청정하천 지역에서만 서식해 '환경지표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시화·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파괴돼

개체 수가 줄어든데다 외부 빛을 싫어해 도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촌천 일대에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은 크게 두 곳이다. 덕남동에 있는 상류 덕남도랑 인근 300m 구간과 수촌교·신장보까지 이어지는 약 7km 구간이다.

앞서 대촌천 상류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반딧불이가 출현했으며, 이듬해에는 종류에서 성충이 100여마리 이상 나오기도 했다. 이후 반딧불이는 대촌천에 정착해 현재 하천 인근 7.6km 구간에서 서식하고 있다.

보존회는 최근 대촌천 일대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불빛·소음 등이 발생한 것을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촌동 일대에 건설 중인 에너지밸리산단에서도 완공 후 가동이나 산



대촌천에서 발견된 암수 반딧불이.

단 내 시설·장비에서 많은 빛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존회는 설명했다.

보존회는 일부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다 나온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한다'며 일부러 반딧불이 서식지를 불태우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4차례 불법 소각으로 총 3050㎡의 반딧불이 서식지가 불탔는데 이동량이 적은 반딧불이 생태 특성상 불이 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고 만다는 것이다.

하천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작 또한 개체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딧불이 애벌레는 초지에서 서식하는 명주달팽이를 잡아먹고 사는데 최근 불법경작이 이뤄지면서 초지가 줄어들어 먹잇감이 사라졌다고 보존회는 설명했다.

다만 남구는 반딧불이 보존 활동은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적극적인 도움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환경 지표 생물이 나왔다고 해서 이곳 일대가 별도의 생태·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며 "구는 대촌천 수질을 유지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서 인근 빛 공해나 대기오염, 불법소각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존회는 24일 남구청에서 '대촌천 반딧불이 보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반딧불이 성충이 출현하는 9월에 맞춰 열리는 체험행사 일정을 논의하고, 빛 공해에 대비해 천변 700m 구간에 빛 차단 숲을 가꾸는 등 향후 대책도 요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개방형 감사관 고재술 홍보담당관에 김학주 전남교육청 9월 1일자 임용

전남교육청은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관(3급)에 고재술(56) 고흥평생교육관장, 홍보담당관(4급)에 김학주(50)씨를 각각 임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재술 감사관 임용예정자는 1990년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나주공공도서관 총무부장, 보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전남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을 역임했다.

김학주 홍보담당관 임용예정자는 전남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목포시지역위원회 홍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들은 9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관은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감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홍보담당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홍보업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동고 해킹’ 학교·교사 시험관리 부주의 확인

교무실 창문 안 잠그고 컴퓨터에 시험문제 저장...매뉴얼 안 지켜

광주 대동고 학생들의 기말·중간고사 시험지 해킹 사건과 관련, 학교측과 교사들의 부주의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대동고에 대한 감사에서 교무실 출입이 가능한 창문 등이 제대로 잠기지 않고 컴퓨터에 시험문제를 저장하는 등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는 교무실 이전 공사로 인해 창문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기말고사 기간 교무실 창문 등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경보장치도 작동시키지 않았다.

일부 교사는 교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웨어에 시험관련 파일을 저장했으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험 관련 내용을 이동용 저장장치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오미정 LG CNS 상무 등이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교육 서비스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중도금 무이자 대출 선회

HDC현대산업개발은 23일 "붕괴 사고로 입주 지연 등 피해를 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에게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입주예정자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중도금을 빌려주되 적정 이자는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입주자 반발 등 여론이 악화하자 '무이자' 대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지원책 발표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발표한 지원책은 총 847세대 입주자와 금전 대차 계약을 맺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한 가구당 평균 3억 3000만원 가량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이를 무이자 대출로 변경해준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비' 명목으로는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일인 2027년 12월까지 전세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가구당 1억 1000여만원 안팎으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만큼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할 방침이다. 할인액은 34평 기준으로 3900만원 가량이다.

'중도금 대우변제' 명목으로는 가구당 2억 2000만원 안팎을 빌려줄 계획이다. 중도금 일부를 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변제해주고 구상권을 갖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예비입주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현대산업개발측은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추가 지원책 발표와 함께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주거지원책 사전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오는 9월 중 본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중·고교생 AI 기반 영어 무료 수강

광주교육청-LG CNS 업무협약

광주지역 중·고교생들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2일 LG CNS(대표 김영섭)와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교육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중·고등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이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광주 초등 학생들은 EBS프로그램으로 영어회화를 공부했으나 중·고교생 프로그램은 없었다.

협약에 따라 학생들은 LG CNS가 지원하는 인

공지능 기반 영어 학습 서비스 제작 플랫폼인 영어회화 학습 서비스 AI튜터 미션 잉글리시를 이달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튜터 미션 잉글리시 앱은 학생들이 공학, 식당 등 상황별 영어회화를 익힐 수 있다.

교사들도 스피킹 클래스 플랫폼에 탑재된 7개 출판사(천재교육 등)의 교과서 콘텐츠를 사용해 수업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개인 수준과 흥미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문화가치대상’ 광주 동구 최우수상

광주시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한 '제4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공약과 정책개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해 한국의 문화가치를 높인 우수문화정책을 시행한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상으로 동구는 지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문화정책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의 민선 7기 문화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가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 심사로 진행됐다.

동구는 ▲광주문화재 야행 '동구달빛길' ▲달빛시티투어 ▲추억의 충장축제 ▲동구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등 차별화된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원도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정책이 앞날 결실로 맺어져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동구만의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문화정책 추진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